

# 진여원(眞如苑) NEWS LETTER

## [제5호](2014.1)

서울시 용  
산구 청파  
동 3가  
119-2 진  
여원홍보팀

### 부산정사 상량식, 시타라 국제부장이 도사 집행, 지역주민 및 내빈들 참좌속에서 엄숙히 거행

부산정사 상량식이 12월 27일 연산동 신축현장에서 열렸다. 전날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고, 때마침 한파가 몰려와 1936년 12월 28일 부동명왕을 권청한 당시와 유사한 분위기가 전개되는 신기함을 보였다. 쾌청한 날씨에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상량식에는 종정스님을 대신해 시타라 국제부장이 도사를 맡아 엄숙함 속에서 의식이 거행되었다.



<시타라 국제부장 도사로 부산정사 상량식 거행>

상량식은 서울, 부산, 창원, 제주 지역의 부회 대표, 사무국원, 내빈 및 지역주민들의 참좌 속에서 거행되었다. 시타라 국제부장은 상량식에 이르기까지 현지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부산정사가 한국 교도 모두를 위한 첫 정사로서, 모든 교도들이 화합속에서 낙경준비, 정법호지 및 구제의 영선확대에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내빈으로 참좌한 부산시 이영환 부시장은 대반열반경을 바탕으로 하는 진여원의 열반정신이 부산시민들의 정신세계 구축에 크게 도움될 것을 기대하며, 진여원이 부산시민들을 위한 발전의 기틀이 되어주길 기원한다는 축사를 하였다. \뒀면에 계속

### 진여원 전국 각지의 리더, 부산포교소에 모여 회의 개최

부산정사 상량식이 거행된 12월 27일 오후 부산포교소에는 진여원의 전국 사무국원, 각지의 부회 대표 약 30여명이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전국의 리더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내년도 진여원의 주요 행사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특히 3월에 개시되는 상삼배와 상반기에 준공될 부산정사의 낙경식을 대비한 프로젝트팀을 결성하고, 향후의 일정과 업무내용 등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 리더들은 전세계를 거친 후 성지로 돌아가기 직전 해외에서 마지막으로 전시되는 개조·영조·교도인·신도인님의 상(像)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의 영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승화시켜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동남부 지역 구제의 도량으로 기대되는 부산정사 낙경식에 종정스님께서 직접 도사를 맡아주실 수 있도록 교도 모두 one heart가 되어 준비해나가는 각오를 깊이 하였다.

이어 이위준 연제구청장도 축사를 통해 평소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진여원이 연제구에 터전을 잡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진여원 부산정사 건립을 통해 부처님의 대승정신을 더욱 구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빈들의 축사 후에는 대반열반경이 독송되고, 독경 후에는 땅을 굳히기 위한 사방굳히기 의식이 행해졌다. 의식 종료 후에는 참좌자들을 향한 떡 뿌리기도 행해졌다.



<시타라 국제부장의 상량식 치사>



<부산정사 2층까지 건립> <기쁨으로 가득찬 참좌자>



<상량식 떡 뿌리기>

그 외 내빈으로 박기흥 연제구의원, 정분옥 연제이웃사랑회이사장이 참석하였고, 정사의 설계·건설과 관련된 설계사, 건축작가동호회, 시공사 대표들과, 부산지역의 언론계, 법조계 인사, 그리고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좌하여 추위에도 불구하고 상량식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구제의 발신 기지가 될 진여원 부산정사가 안전하고도 굳게 건립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실어주었다.

### 진여원 홈페이지 개장준비 한창 진행중

굽직하고도 기쁜 행사가 연이어 전개될 2014년에는 진여 가르침을 보다 널리 알리고, 교도 모두의 신심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진여원 홈페이지가 개설될 예정이다. 진여원 총본산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진여원의 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늦은 한국에서는 특히 청년 교도들의 홈페이지 개설요구가 뜨겁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설 추진위원회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진여교학에 대한 설명자료를 대부분 정리하고 이제는 홈페이지 설계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홈페이지 개설은 상삼배 개시 이전을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한다.

## [체험담] 도전! 해보자! 가르침! 투철한 각오로 정진하고 있는 무주의 김명님 교도

저는 전북 무주에서 소속들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귀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초신자 시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상한 절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종정스님께서 올려주시는 법요의 장엄한 아름다움에 기분이 좋아지곤 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받는 "접심"은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주어 의지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어렵고 힘든 사

람들을 볼 때면 "신노엔에 오면 정화되어 좋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소속을 받았고, 때로는 길을 벗어나고 싶은 때에도 "소속들이 보고 있으니까"

라며,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는 한 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관계로 새어머니 밑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인도자의 권유로 신노엔에 맺어지게 되었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믿음도 감사도 부족한 때여서 접심에서 하지 말라는 결혼을 반신반의하며 고집대로 해 버렸습니다. 역시 결혼 후 많은 마음 고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외로웠는데도 인도자는 개조, 영조 이야기만 하며 제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니 무척 야속했습니다. 저는 개조, 영조, 교도인, 신도인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높은 가르침의 잣대를 들이대는 인도자를 보며 "사람이 아니야. 뽕쟁이야" 라며 감사는 커녕 원망만 했습니다. 절에 와서 비디오를 봐도 들리지 않고, 교서를 읽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나날들. 심지어 "저는 왜 부자가 안 되는 걸까요?" "왜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운가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에게 원망이 돌아오는 건가요." 라고 개조, 영조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를 욕하는 것 같았고, 어쩌다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볼 때면



"분명 수술했을 거야" 라고, 괜히 험뜯고 싶은 마음도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매달 귀원하여 예사 수행, 사람인도와 함께 가정집회를 계속해 가자 어느 순간 "지금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닦아가면 더 좋은 인연을 열 수 있다. 답은 가르침이구나. 결국 가르침 밖에 없다." 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 가르침에 매진할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조 생탄 백년 회고전을 맞아, 소속 및 아이들과 함께 성지 오야소노를 참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조, 영조의 고향 야마나시에 그림처럼 둘러쳐진 산맥들. 법부모의 생가. 영조의 손을 시리게 한 빨래터의 시냇물 등. 참으로 깊은 감격을 느끼고, 저의 신심도 한층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

못 할 것 같았던 청년 슈퍼아리나에도 다녀오는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세계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큰 감동이었지만 가까이에서 종정스님을 뵈었을 때는 갑자기 가슴이 복받치며 눈물이 솟았습니다. 직접 뵈 종정스님의 얼굴은 피곤하고 힘든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종정스님께서 세계 여러 제정령과 우리 선조님들 인연을 모두 짊어지셔서 힘드시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에 정말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깊은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차를 직접 몰고 절에 다니는 십여 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고, 사랑스럽고 착한 아이들을 둘이나 주셨고, 집도 차도 남편도, 보물같은 소속들, 더구나 가르침을 같이 해 주시는 시어머니...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이러한 오늘이 종정스님께서 쏟아주신 참마음이 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제멋대로인 저에게, 감사보다는 더 바라는 생각만 해온 저에게,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항상 넘치는 자비를 쏟아주시고 받아 주신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을 교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종정스님! 맡겨주세요. 감사로 받아서 어떤 일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한수행을 향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려는 저의 각오입니다.

## <청파동 칼럼>

### 스포츠 선수의 기량향상과 보살도(김형태)

스포츠선수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끊임없는 훈련’에 있을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하더라도 훈련하지 않으면 기량이 연마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능 선수가 되기 위한 지원자들이 적지 않다. 초보자들은 처음에 유명선수처럼 실습을 행한다. 물론 실습에 앞서 기량을 빨리 익힐 목적으로 ‘기량향상방법’을 터득하려 노력한다. 그리하여 기량을 익히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진지한 고민거리가 된다. 유명선수들의 동작 하나 하나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로부터 자기만의 ‘비법(!)’을 터득한다.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그 비법(진리)을 발견하고는 실행해본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조급증이 난다. 그 결과 다시 연구를 시작한다. 이번에는 다른 유명선수의 동작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아! 이걸 몰랐네...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발견된 진리에 따라 다시 시도해본다. 그럼에도 성과가 잘 나지 않는다. “왜 잘 안되지?” 그리고 수차례 더 시도한 후 “아-이 종목은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다른 종목을 선택해야겠구나”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초보자들이 이처럼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결론을 말하면 최초부터 기량을 닦고자 하는 실습보다는 ‘요령’ 터득을 중시한데 기인한 것은 아닐까. 기량은 피나는 반복훈련을 통해서만 획득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을 피하고, 지름길을 찾으려 했으니, 되기 힘든 것이 아닐까. 지름길이 어디 있겠는가. 무수한 훈련을 통하는 것이 지름길인 것을. 선수의 기량과 불제자의 보살도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측면이 적지 않다.↗

### 서울 청년부, ‘응답하라 청춘’ 이벤트 개최

서울청년부는 지난 12월 21일 ‘응답하라 청춘’이라는 주제로 각자의 친구들을 초청,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우정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케익만들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당일 2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자 케익을 손수 만들어 나누어 가지며 유대강화를 도모하고, 가르침도 함께 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살을 지향하는 불제자는 기량(보살도)을 연마(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름길만 찾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인도자 및 도반들로부터 설명듣고, 경전을 읽고는 ‘그래,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왜 내게는 보살정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라며 머리를 갸우뚱하는 불제자들이 적지 않다. 그것은 머리로 ‘이해한 것’을 마치 ‘뉘었다’고 오해한데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이해했다’는 것과 실제로 ‘해보았다’는 것에는 염연한 차이가 있다. 불제자는 연마를 통해 보살(선수)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방법론을 터득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훈련을 100회 행한 선수와 1-2번 밖에 행하지 않은 선수간에는 현격한 격차가 있기 마련이다. 보살도는 실천과정을 통해 비로소 연마된다고 개조께서 설하신 점을 다시 상기하고 싶다. <칼럼은 진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